

“북한 출입 모든 선박 검문·금융제재 확대” 美·日, 北 전방위 고립화 추진

결의안 초안... 中 “무력제재 단호 반대”

▶ 관련기사 3·4·5·6·7·11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9일(현지 시간) 대북한 금융제재 확대는 물론,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입시검문 등을 포함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 초안에는 무력 제재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미국의 결의안 초안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무기나 핵, 미사일 관련 기술이나 물품은 물론 사치품의 대북 공급·판매·이전·거래 등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초안은 또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 파괴 무기 개발, 자금세탁 등의 위법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각국은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해 입시검문을 실시하는 한편, 북한으로의 자산, 자원 이전을 막을 것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결의안은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30일 이내에 북한의 행동을 재검토해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별도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일본은 모든 북한 선박의 기항과 항공기의 이착륙 금지 등 미국 안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선

박과 항공기 통제 이외에 ▲모든 북한 제품의 수출입 금지 ▲북한 고위 관계자의 해외여행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유엔 대사들은 이날 안보리를 방문,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무책임의 소치라고 규탄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 중인 결의안 채택 노력을 지지했다.

하지만 미일 양국의 결의안 초안의 제재 수위는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그동안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일본이 제출한 제재안 초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의안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응징 조치로 대북 군사행동을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북한에 6차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더욱이 영국과 프랑스도 제재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미국의 제재 결의안 초안을 수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 주장과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이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비난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가로운 北 주민
 북한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노동당 창건 61주년인 10월 휴일을 맞은 북한 시민들이 압록강에서 유람선을 타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압록강 건너편 중국 단둥 지역에서 촬영했다. /연필뉴스

광주·전남 對北지원 중단 기로

지자체·민간단체, 25일 평양 비닐온실 준공식 참석 불투명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돼왔던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이 지난 9일 북한이 강행한 핵 실험으로 혼란에 빠졌다.

지난 2000년부터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온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전남도내 22개 시·군이 지원하는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는 오는 25일 평양에서 비닐온실 및 냉장창고 준공식을 갖기로 했으나 북한 핵실험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방북대표단은 운동본부 관계자, 전남도와 22개 시·군 대표, 전남도의회, 기업체, 전남대 관계자 등 모두 5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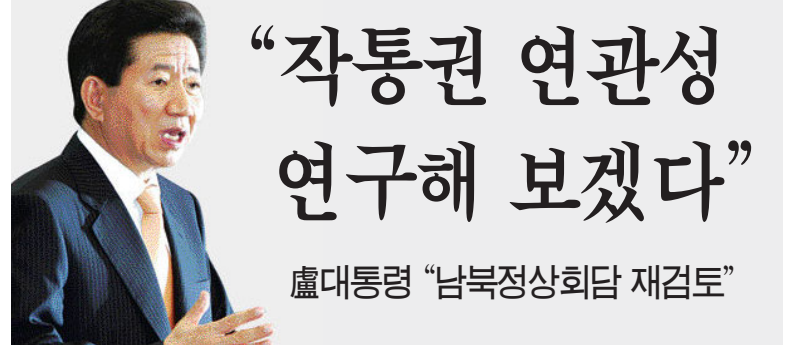
명으로 구성돼 25일 고려항공편으로 북한을 방문해 28일까지 준공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전남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해 방북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9곳만 행사에 참여기로 확정된 상태이며 핵실험 이후 통일부가 지자체의 대북지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상황 변동도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00년 광주불교사암연합회·민예총·광주흥사단 등 광주·전

남 2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로 발족한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민간 모금활동과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통해 2000년 9월28일 간미역 23t(2만 3천상자·1억 3천만 원 상당)을 북한에 보낸 것을 시작으로 활발한 대북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쌀 ▲방울토마토 ▲양파 ▲경운기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비료 ▲교과서 제작용 종이 등 3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올 초에는 못자리용 비닐 2천 300롤을 개성 육로를 통해 지원했다. /박지경·임주희기자 unipark@



“작통권 연관성 연구해 보겠다”
 盧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재검토”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10일 오전 청와대 조찬 간담회에서 북핵실험은 응답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핵실험 사태는 비상 상황을 맞아 초당적인 대처 및 한미 동맹 등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실험 사태와 관련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과국적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와 관련, “방점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전시 작통권 환수의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지만 북한의 핵 실험 강행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작통권 환수의 일정이나 내용에서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북한 핵 실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어유를 갖고 인과 관계를 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정책 실패에 따른 내각 교체 주장에 대해 “전장에서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이 오래 지속되고 할때는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에서 유용한 마지막 해결의 카드인데,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제, 하루만에 빠른 안정세

코스피 9P·코스닥 15P 반등... 환율도 진정

북한 핵실험 여파로 자금 이탈, 증시 폭락, 환율 급등 등 충격에 휩싸이던 국내 경제가 10일 빠른 안정세를 회복했다.

코스피지수는 9일 개인투자자의 불안이 두드러져 전날보다 32.60포인트 떨어진 1319.40에 거래를 마쳤다. 10일 1328.50으로 8.97포인트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48.22포인트 떨어진 539.10에서 10일에는 15.60포인트 오른 554.70으로 반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9일 1년 10개월만에 최저폭인 14.80원이 오른 963.90원까지 폭등했다가 10일 959.50원으로 4.40원 하락해 진정세를 보였다.

또 수출·입은 추석연휴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북핵실험에 따른 영향을 받은 징후는 없었다. /이재기기자 jilee@kwangju.co.kr

핵실험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 금융시장을 흔드는데 그쳤다”면서 “영향이 실물경제까지 미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철수나 투자지연 등 특별한 조치가 발견되지 않았고, 유가나 원자재도 소폭 상승했을 뿐”이라며 “특히 쌀이나 밀가루·라면·부탄가스 등 생필품의 물가는 전일대비 가격변동이 전혀 없어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핵실험과 관련해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 매일 경제상황을 점검해나가기로 했으며, 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식입장과 시장상황을 e-메일로 보내기로 했다.

후원학원 장학 50% 즉시반환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새터문 담당자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sc.ac.kr

대한민국불가정보
 한국인생의
 한국인생의
**국내 최고 권위의
 불가정문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Love is the best Medicine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말해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안과 알반의약품

- 키랄라 점안액
- 신도플 류관안액
- 비어플 점안액

국제약품의 키랄라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알반의약품, 키랄라, 비어플, 신도플과 함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의 키랄라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알반의약품, 키랄라, 비어플, 신도플과 함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